

순천 동천저류지 ‘가시연꽃’ 활짝

‘매토 종자’ 휴면 거처 발아
생태관광·교육자원 활용 기대
전문가들 “보존대책 마련해야”

순천시가 대규모 푸드트럭 야시장 사업을 추진하며 동천저류지에 조성한 연못에서 멸종위기생물인 가시연이 광범위하게 자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이학박사인 김민철 (세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장)은 오전중에 사는 시민의 제보로 동천저류지에서 관련 전문가들과 몇 개월 동안 관찰한 결과 가시연 ‘매토 종자’가 휴면에서 깨어나 꽃을 피운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가시연은 가시연꽃으로도 불리는 한해살이 수생식물로 오래된 연못이나 저수지, 호수에서 산다.

우리나라에서는 창녕 우포늪과 강릉 경포 습지가 대표적인 자생지로 해당 지자체들은 이를 보존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으며, 생태관광자원으로도 활용하고 있다.

가시연꽃은 우리나라 자생식물 중에 가장 잎이 커서 지름이 보통 20~120cm 정도이며, 잎의 뒷면은 주름이 지고 가시처럼 뾰족뾰족한 돌기가 있고 아랫면은 진한 보라색을 띤다. 7~9월에 연붉은 자주색 꽃이 핀다.

1960~197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 주변의 연못이나 습지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으나 도시화로 인해 습지가 줄어들며

멸종위기에 처했다고 한다.

가시연의 씨앗은 물 밑 땅속에 묻혀서 최소 1년을 보내야 발아가 되는데, 수온이 낮은 경우 발아가 되지 않고 휴면하다 조건이 갖춰지면 발아한다.

강릉 경포습지의 경우도 농경지를 습지로 복원하는 과정에서 50여 년 만에 발아했다고 한다. 기록에 의하면 500년이 넘는 종자가 발아됐다는 보고도 있다.

김민철 박사는 “원래 동천의 범람원이었던 곳이 농경지로 사용되다가 다시 습지로 전환되며, 땅속에 묻혀있던 종자들이 싹을 틔운 것으로 보인다”며 “섬세한 관리가 필요한 습지 생물의 특성상 서식환경을 잘 보존하고 습지 인근 지역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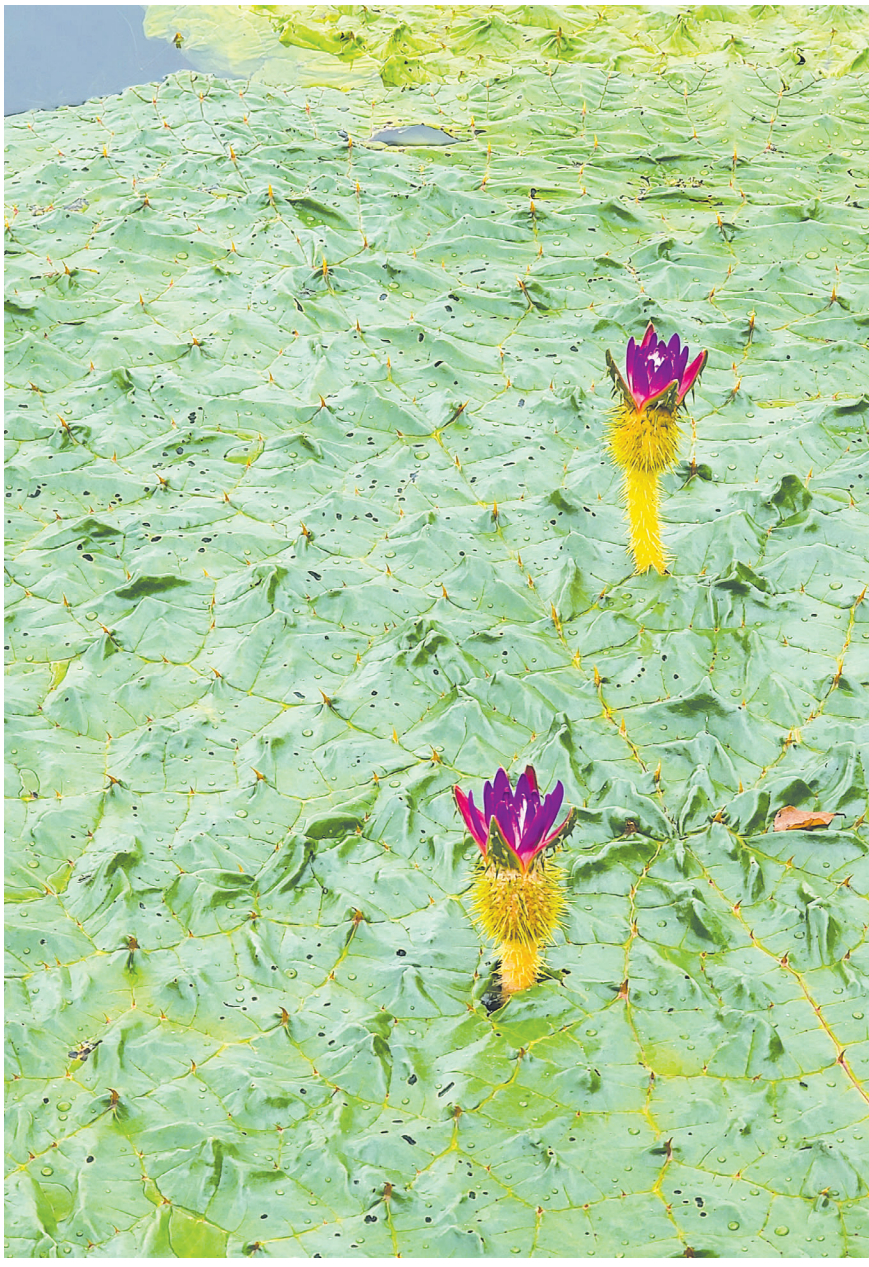
생태도시를 지향하는 순천시로서는 생태관광과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넘칠까 둘러온 셈이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가시연을 보존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하지만 꽤 넓은 지역에 분포해 눈에 쉽게 띄고 꽃이 피어 시든 한살이를 거뒀음에도 아직 가시연의 존재를 순천시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순천시는 지난해 4월부터 순천만 국가정원과 연계한 체류형 관광을 유도하기 위해 1만1,000㎡ 부지에 총사업비 19억여 원을 투입해 전국 최대 규모의 푸드트럭 야시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남취재본부=권동현 기자



순천 동천저류지 연못에 자생하는 가시연이 꽃을 피웠다.

/김민철 박사 제공

가상으로 즐기는 특별한 ‘농촌여행’

곡성 품키움마루에 체험존
VR·AR 활용 몰입감 높여

곡성군이 농촌관광 실감형 콘텐츠 체험존으로 특별한 농촌여행을 선보인다고 26일 밝혔다.

곡성군은 지난 8월 개관한 곡성군 품키움마루 1층에 체험존을 운영하고 있다. 체험존은 구역별로 어드벤처 벨리, 편 벨리, 네이처 벨리, 팜 벨리로 나뉘져 있다. 각 구역에서는 농촌체험 미디어, 실감미디어, 곡성이야기 AR 및 VR 콘텐츠를 즐길 수 있다.

VR 체험존에 들어서면 곡성의 농산물, 자연경관, 문화관광지 등 메타버스로 구현된 곡성을 둘러보면서 체험 준비를 한다. 곡성군이 개발한 도깨비 캐릭터와 로니, 라니가 친근하게 안내한다.

애니메이션으로 구현된 청계 폭포 등 곡성의 아름다운 자연과 생태가 이채롭다. 곡성의 자랑 장미공원도 가상현실로 구현돼 공중열차를 타고 순식간에 돌아볼 수 있다. 섬진강 래프팅에 온몸을 맡기는 스펙터클한 VR 체험도 가능하다.

곡성군 VR체험은 인터랙티브 방식으로 구현돼 단순히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영상 속을 자유롭게 이동하거나 영상 속 물건을 움직일 수 있어 더욱 높은 몰입감을 느낄 수 있다.

AR 체험존은 스마트 패드를 활용해 더욱 실감나는 체험을 할 수 있다. 수달 등이 헤엄치는 섬진강의 생태계를 관찰하는 것은 물론 축대로 은어나 꺾지를 잡을 수도 있다. 가상이지만 실제 물속에서 낚시를 하는 것처럼 팔뚝이는 은어를 잡는 손맛이 느껴진다.

체험존에는 여럿이 동시에 직접 농산물을 키워보는 다중 참여 VR 콘텐츠 체험도 가능하다. 곡성의 주요 특산물인 멜론을 모종 심기부터 수확까지 순서대로 수행하는 미션은 체험객들에게 성취감은 물론 농사에 대한 흥미를 유발한다.

곡성군 관계자는 “현장감과 리얼리티를 살린 실감형 콘텐츠로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농촌체험관광에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가상 체험을 실제 농촌체험 학습으로 연계하는 일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남취재본부=한정길 기자

여수 ‘개항 100주년’ 기념사업 중간보고회

여수시가 지난 24일 ‘여수 개항 100주년’ 기념사업 실행계획 수립운영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는 권오봉 시장 주재로 100인 시민추진위원회 감병호 전제위원장과 임원진, 강현태, 박성미, 송재향 시의원, 전문가 자문단, 실무 TF팀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미래 여수항의 비전을 ‘사랑과 공존하는 해양북한관광거점 여수항’으로 수립하고, 용역사가 여수항 실태 분석에 이어 중장기 8개 과제와 단기 10개 과제를 발굴해 제시했다.

김용재 책임연구원은 중장기 과제로 여수신항의 박람회장 활성화를 위해 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과 크루즈 전용 터미널 확장사업이 필요하고, 신항-신북항 진입도로 확장과 국동항-여수구항 연결도로 개설 등 관광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여수항의 항계를 돌산 우두 일원까지 확대해 조선소 집적화 후 유휴부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여수항이 해양북한관광거점 중심항으로 성장하기 위해 국가보안구역 지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남취재본부=곽재영 기자



여수시는 최근 ‘여수 개항 100주년’ 기념사업 실행계획 수립운영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여수시 제공

보성 ‘오봉산 생태길’ 조성 완료

5.8km 다섯 가지 테마 선별
트리하우스·데크 쉼터 설치

보성군이 최근 우수한 자연 생태 경관과 역사·문화자원을 연계한 ‘오봉산 생태길 조성사업’을 완료했다고 26일 밝혔다.

보성군은 새로운 관광명소를 개발하기 위해 2018년부터 총사업비 17억 원을 투입해 숲속 생태 탐방로를 비롯한 트리하우스, 데크 쉼터 등을 조성했다. 오봉산 생태길은 총 길이 5.8km로 황

소결음길, 칼바위길, 수변산책길, 용추골길, 구들돌담길 등 다섯 가지 생태문화 테마길로 조성됐다.

황소결음 길은 오봉산 구들장 사업이 활발하던 시기에 새벽달을 보고 일어나 해가 질 때까지 가파른 산길을 소달구지를 끌고 오르내리던 보성 군민들의 애환을 느낄 수 있는 길이다. 소달구지에 구들장을 싣고 오르내리던 ‘갈 지’자 모양의 산길을 직접 걸어볼 수 있다.

칼바위길은 오봉산의 트레일마크인 칼바위를 명소화했다. 여름철에는 시원하고 겨울철에는 따뜻한 바람을 느낄 수

있는 풍혈지와 구들장을 이용한 돌탑, 기념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 설치를 비롯해 트리하우스 등을 조성했다.

수변 산책길은 23만2,000㎡의 드넓은 해평 호수를 따라 걸을 수 있는 데크로드와 맨발로 황토길을 걸을 수 있는 산책로로 조성됐으며, 용추폭포를 따라 걸을 수 있는 용추골길과 오봉산의 자랑인 구들장을 쌓아 만든 구들돌담길도 마련됐다.

오봉산 구들장 채석 현장은 현존하는 세계 최대 구들장 채석지로 우리나라 온돌문화의 중심지이기도 하다. 또한

일제강점기 고된 노동을 생계와 맞바꾼 살아있는 근현대사 현장이기도 하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우리 역사와 아름다운 생태 경관을 잇는 생태 길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군민들이 편안하게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명품 길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보성군은 오봉산 일원에 천년 구들장 힐링파크 조성사업(57억 원)과 해평리 농어촌도로 205호선 선형개선사업(3억 원)을 연계 추진해 구들장 테마파크로 키워갈 계획이다.

/전남취재본부=백종두 기자

클릭! 고흥 속으로



보성 ‘득량바라기 7호’ 입주식

보성군 득량면희망드림협의회는 최근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전남지역본부,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와 함께 ‘득량바라기 7호’ 입주식을 가졌다고 26일 밝혔다.

대상 가정은 40여 일간의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 새 단장을 마쳤다.

득량면은 슬레이트 철거비와 긴급복지 생계비를 지원했으며 ‘좋은이웃들’을

연계해 가스레인지 등 가전제품을 입주 선물로 제공했다. 리모델링 비용은 모금 활동을 통해 전국에서 1,100여 명이 보낸 순금 5,600만 원으로 충당했다.

득량면희망드림협의회는 지난 5월부터 민간자원을 연계해 저소득 취약계층 집수리를 지원하는 ‘득량바라기 100호’ 만들기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전남취재본부=백종두 기자



곡성 드림스타트, 예비 중학생 공부법 강의

곡성군 드림스타트는 최근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예비 중학생을 위한 공부법 강의를 시작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초등학교와 다른 교육과정, 교과 수업 활동, 평가 등을 미리 알려줘 새로운 학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수업은 일대일 개인 맞춤형 기초학습 지원 방식으로 진행되며, 학습격차 해

소를 위해 전문가사가 12월까지 주 2회 진행한다. 학습의 가장 기본이 되는 국어, 수학 관리에 초점을 두고 있다

참여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중학교에 진학하기 전에 기초를 다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수업으로 좋은 습관과 학습 능력을 튼튼하게 다져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전남취재본부=한정길 기자

고흥,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고흥군이 최근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학대 피해 아동 발견 시 즉각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 4월에 이어 두 번째이며 아동보호기관인 고흥군, 고흥경찰서, 고흥교육지원청, 고흥군가족센터, 고흥나누리상담센터 등 5개 기관

50여 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주요 시가지에서 아동학대 유형, 신고요령, 아동학대 신고 전화번호 112와 832-1391 등을 담은 홍보물을 배부하며 캠페인을 펼쳤다.

고흥군 관계자는 “유관기관과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고흥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취재본부=진종연 기자

